



LG전자 AHR 엑스포 2020 부스.

/LG전자

LG전자, 북미 공조시장 공략 본격화

“고효율·맞춤형 솔루션 구사”

美 올랜더서 ‘AHR 엑스포 2020’ 참가  
공조·부품솔루션 파트 나눠 제품전시

LG전자가 차별화된 공조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북미 공조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3일부터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0’에서 고효율 및 공간 맞춤형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 부스는 500㎡로 조성되며, 공조솔루션과 부품솔루션으로 나눠 전시한다.

공조솔루션 전시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제어하는 솔루션 등 2020년형 상업용·주거용 공조 솔루션이 준비됐다.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라인업과 난방솔루션인 하이드로 키트에 집중한다.

특히 멀티브이는 30도 혹한에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 북부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제품이다. 건물 크기와 특징, 용도에 따라 최적의 난방을 구현할 수도 있다.

부품솔루션 전시관에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크롤 컴프레서와 로타리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도 전시했다.

/김재용 기자 juk@

KAI, 중소 협력사에 ‘상생기금’ 100억 출연

중기부 주관 11번째 ‘자상한 기업’ 선정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일 사천 본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KAI 상생정책을 발표하고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이어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기부 주관의 11번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안정화 지원 ▲지속성장 환경 마련 ▲기술기반의 체질개선 ▲건강한 일터구

현 등 4개 테마의 상생정책을 발표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단가를 인상하고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해 연간 50억원의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2022년까지 외주 물량을 두 배(6000억원)로 확대하고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공정 개발을 지원하며 기존 신규 투자 촉진지원금인 상생자금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제품출하서 사후관리까지 데이터 통합관리

효성ITX-다쏘시스템 전략적 제휴  
스마트팩토리 구축 컨설팅·기술지원

효성ITX가 다쏘시스템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효성ITX는 3일 다쏘시스템과 효성그룹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은 모델링 및 데이터 관리 회사다. 효성에 3D 모델링과 데이터 관리 등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효성ITX는 다쏘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해 효성그룹 공장 제조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다쏘시스템 프로페셔널 솔루션즈 사업본부 김화정 본부장(왼쪽)과 효성ITX 스마트팩토리사업부문 탁정미 상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효성ITX

효성그룹은 이를 통해 모든 공장에서 제품 기획과 개발, 설계에서 출하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공정을 데이터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제조 환경도 한층 고도화할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베일 벗은 기아車 ‘신형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적용

〈친환경 파워 트레인〉

국내 최초

신규 플랫폼 기반 레이아웃 설계  
대형 SUV와 비견되는 공간성  
안전성·승차감·핸들링 등 개선

기아자동차의 올 상반기 기대주인 ‘신형 쏘렌토’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기아차가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인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신형 쏘렌토’의 티저 이미지를 4일 처음 공개했다. 신형 쏘렌토는 새로운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기존 중형 SUV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과 가치를 구현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쏘렌토는 2002년 1세대 출시 이래 국내외에서 누적 300만 대 이상이 판매된 스테디셀러 SUV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성능 및 디자인 혁신을 이루며 ‘R V 명가’라는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한 일등 공신이다.

4세대 쏘렌토 역시 큰 폭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에 SUV로는 처음 적용한 신규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적의 레이아웃



기아차 4세대 쏘렌토 티저 이미지.

설계를 통해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공간성을 확보했다. 여기에도 충돌 안전성, 주행 안정성, 승차감과 핸들링(R&H) 등 많은 부분에서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특히 4세대 쏘렌토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국산 중형 SUV 최초로 적용돼 향상된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친환경 SUV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형 쏘렌토는 동급 최고 수

준의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및 IT 편의사양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돼 국내에서 비중이 높은 중형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4세대 쏘렌토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SUV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형과 대형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단과 SUV를 동시에 염두에 둔 고객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다재다능한 SUV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텔루라이드.



현대차 팔리세이드.

꽃 피운 정의선의 ‘품질·디자인’ 경영 전략

〈현대차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 7개차종, 美 ‘굿디자인 어워드’

3개 브랜드 동시 수상 이례적  
“고객 중심 디자인 철학 지속 발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강조해온 ‘품질·디자인 경영’이 꽃을 피우고 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2005년 기아차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품질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를 이끌어 왔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 3인방의 7개 차종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시상식에서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높이고 있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

아차·제네시스는 팔리세이드, 쏘나타 센슈어스, 텔루라이드, 쏘울, 하바니로, G90, 민트 콘셉트 등 7개 차종이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상인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디자인 역사와 방향성이 다른 3개 브랜드가 동시에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디자인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고객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

팔리세이드, 쏘나타 센슈어스 등 2개 차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아차 중에서는 텔루라이드, 쏘울, 하바니로 등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센터장(전무)은 “기아차는 지속적인 감성품질 향상과 보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비전들은 텔루라이드와 쏘울에 잘 깃들여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디자인팀과 엔지니어링팀의 결실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제네시스는 G90·민트 콘셉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에 앞서 2015년 EQ900(현지명 G90), 2016년 쿠파형 콘셉트카 비전G, 2017년 G80 스포츠·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 2018년 에센시아 콘셉트·G70가 연이어 수상했으며, 브랜드를 출범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G90.